

검찰, '두 아들 살해' 母 징역 20년 불복...쌍방향소 제기

초등생 아들 2명 목 졸라 살해한 혐의 1심 징역 20년...“평생 죄책감 가질 것”

생활고를 겪다 초등학생 아들 둘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여성 김모(41)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후 피고인에 이어 검찰도 항소를 제기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2일 이 사

건 1심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 측도 선고 다음 날인 21일 판결에 불복

해 항소한 바 있다.
앞서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혼자서 아이들 키우면서 남편의 수악에 의존해 키우면서 힘든 적이 많았을 것 같다. 본인마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불안감과 절망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이 된다”며 “설령 자유의 몸이 된다 하더라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인간은 태어나면서 이미 독립된 인격체이며 부모에게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만이 있다”며 “불안에 시달린 것은 알겠지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심각했는지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서울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3학년, 2학년생 아들 2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저지른 뒤 극

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이를 뒤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편과 별거한 뒤 두 아들을 홀로 키워오던 김씨는 남편이 보내는 월급으로 생활을 해왔다. 그러던 중 남편의 해고 소식과 함께 자신이 사는 집이 압류될 것이라 통보를 받았다. 이후 남편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이슬기자



폭염엔 분수가 최고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수교에서 시민이 달빛무지개 분수를 보며 자전거를 타고 있다.

아파트 주차장에 텐트... “부적절한 민폐” vs “말리는데 이해 가능”



공용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개인 텐트에 대

한 네티즌들의 감론을박이 뜨겁다.
23일 보배드림에는 “살다 살다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가 A씨는 텐트 사진과 함께 “주차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 어떤 분이 텐트를 말리는 것 같다”며 “주변에 사람이 없고 집에 들어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집에서 말리려라. 왜 민폐를”이

라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사진 속 텐트는 주차장 주차선 안쪽에 설치돼 있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공용공간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다”, “텐트 세탁소에 말기엔 된다”, “한 명을 봐주기 시작하면 너도나도 하니 문제가 된다”며 텐트 주인의 행동을 지적했다.
반면, “낮 시간 넓은 주차장이면 좀 봐줘도 되지 않나”, “잠깐 말리면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슬비기자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청주 산부인과 화재...관계자 2명 입건

화재 관련,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

지난 3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산부인과 화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병원과 시설업체 관계자 2명을 입건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시공업체 대표 A씨를 전기공사법 위반과 업무상 실화 혐의로, 병원 시설과장 B씨를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29일 사창동 한 산부인과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화재의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에 대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불이 난 산부인과 1층 주차장 천장 내 전기 설비에서 발생한 ‘전기적 요인’인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이 산부인과에선 불이 나기 전인 3월21~25일 1층 주차장 천장 내부 보수 작업이 진행됐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한 조사한 경찰은 이들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이들을 검



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29일 오전 10시9분께 이 건물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신관 건물 외벽을 타고 본관과 구관 인근 모텔까지 번졌다.
불이 났을 때 산부인과 병원 건물 안에 있던 신생아와 산모 등 122명은 자력으로 대피하거나 구조됐다.
중상자와 사망자는 없었고, 산모와 신생아 45명이 다른 산부인과 병원으로 전원 조치됐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3시간여 만에 꺼졌다.
김재환기자

순천 조계산 실종 50대 등산객, 숨진 채 발견

정확한 사망 경위 파악 중

일행과 하산하는 과정에서 실종된 50대 등산객이 계곡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5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6분 순천시 송광면 조계산 등산로에서 A(55)씨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대원과 함께 수색에 나선 경찰은 신고 접수 2시간7분 만에 조계산 계곡에서 피를 흘

린 채 물에 빠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구조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앞서 A씨는 일행 7명과 같은날 오전 조계산에 올랐다가 하산 도중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발을 헛디뎠 계곡으로 추락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